

베트남(Viet-Nam)의 傳文學에 관한 연구

—「傳奇漫錄」所載 作品의 寓意性을 중심으로—

郭 正 植*

목 차

1. 서 론	3-3. 東潮廢寺傳—非正統王朝의 허구성 폭로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연구내용과 방법	3-4. 翠納傳—不正한 臣下로 인한 正統王朝의 悲運
2. 「傳奇漫錄」의 형성배경과 문학사적 의의	3-5. 南昌女子傳—不信風潮에 대한 覺醒 促求
2-1. 「傳奇漫錄」의 형성배경	
2-2. 「傳奇漫錄」의 著作年代와 文學史的 의의	3-6. 李將軍傳—至公無私한 天道의 再闡明
3. 「傳奇漫錄」 소재 작품의 意味構造와 寓意性	3-7. 麗娘傳—人倫의 正道에 대한 認識 促求
3-1. 快州義婦傳—正統 王朝 회복에의 염원	4. 「傳奇漫錄」에서의 작자의식
3-2. 木棉樹傳—濟世安民의 우국정신	5. 결 론

* 慶星大 國語國文學科 教授

** 이 論文은 1990년도 文敎部 支援 韓國學術振興財團의 自由公募課題 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지금까지 傳 樣式 혹은 傳文學에 관한 연구물은 그 양적인 면에서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여태 전 양식의 성격 규정은 일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傳이 서사장르인가, 교술장르인가, 아니면 다만 傳일 따름인가 하는 지루한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같은 논쟁의 원인이 연구자의 잘못된 선입견이나 접근방식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요컨대 그동안의 논쟁은 취급하는 자료의 개별성 내지는 특수성에 따른 현상일 뿐, 傳 樣式的 본래적, 보편적 성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제까지의 논쟁을 발전적 계기로 삼아서 전 양식의 보편적 성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루어야 할 자료를 확대하고 연구의 시각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자 문화권에 함께 속해 있으면서 서로 다른 種族과 風土, 역사적 배경을 통해 그 나름대로 특이한 전통을 지녀 온 베트남(越南)의 傳文學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서 갖는 독자적, 개별적 의미나 가치 이외에, 앞으로 우리 傳文學의 실상을 파악하고, 나아가 한자 문화권 안에서 傳 樣式的 전개 내지는 발전 양상을 보다 총체적 모습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되는 바 클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베트남의 전문학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다시 한국 전문학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논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어떤 의미있는 자료 내지는 示唆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내용과 방법

한문학에서의 전 양식은 사마천의 史記 列傳을 통해 독자적 문체로 확립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매우 다원적인 성립과정을 거쳐 왔다. 따라서 전 양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작품 연구에서와 같은 미시적이고 분석적인 관점보다, 사적 형성과정에 따른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

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전문학의 다양성은 양식 자체의 다원적인 성립과정에서 볼 때, 필연적 현상에 불과하다.¹⁾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전 양식의 문학사적 전개양상과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결코 합리적 설명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전문학의 사적 전개양상을 보더라도, 원초적으로 전 양식이 作(傳)者の 개인의식(또는 세계관)을 허용하는 개방적인 것일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사회 역사적 상황과 긴밀히 관련된 변모와 굴절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규범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작자층이나 독자층이 포괄적인 전 양식으로 인식하고 수용한 작품일 경우, 충분히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일차적 작업으로 阮嶼의 「傳奇漫錄」²⁾ 소재 작품을 분석하기로 한다. 앞에서 이미 밝힌 대로, 한자 문화권 안에서 가장 보편적 산문 양식인 傳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특히 서술 방법과 의미구조, 즉 객관적 사실과 虛構라는 두 지향성에 관한 作(傳)者の 태도와 표현양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적 경험과 관련한 작자의 현실인식 또는 세계관 등 내용적 고찰을 주안점으로 할 것이다. 이는 다만 개별 작품에 대한 공시적 이해가 우선하는 데 따르는 불가피한 제약이거니와, 총체적으로는 베트남에서의 전문학의 유래 내지는 형성적 배경과 역동적인 전개 양상, 하위 유형의 분화등이 계속 규명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전문학과의 비교문화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서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자세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1) 春秋三傳을 중심으로 한 傳 樣式의 성립과정은 拙稿, 韓國 傳文學의 展開樣相과 特性 研究(釜山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를 참고할 수 있으며, 보다 근원적으로 중국 古代散文의 기본성격 및 中心文化圈의 이동에 따른 후대적 변모와 관련한 총체적 이해는 別稿에서 다루고자 함.

2) 陳慶浩, 王三慶 主編, 越南漢文小說叢刊 第一冊(臺灣, 學生書局, 1985)

2. 「傳奇漫錄」의 형성배경과 문학사적 의의

2-1. 「傳奇漫錄」의 형성배경

베트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없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半島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북으로는 직접 중국과 국경을 마주 접하고 있어, 前近代 2천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³⁾

역사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지배는 일찌기 진시황의 남방진출에서 시작되었으나, 기원전 111년 漢武帝가 南越을 정복하고 그 판도 내에 七郡을 설치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지배가 이루어졌다.⁴⁾ 더우기 前漢 말에 중국 본토가 혼란에 빠지자, 적지 않은 관리와 지식인들이 남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고급의 중국문화를 이식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현지의 토착사회와 밀착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실질적인 중국문물의 적극적인 이식이 베트남의 토착세력에게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토착세력의 저항도 거세게 일어났다. 남북조 시대를 거쳐, 특히 唐과 明에 걸친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정치적 지배와 이에 대한 저항이라는 상반된 힘의 논리 앞에서 끊임없는 살육이 자행되었고, 막대한 희생을 치른 댓가로 베트남인의 자아각성과 민족의식은 더욱 확고해졌다. 중국문화의 지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939년 마침내 베트남 최초의 독립왕조를 성립시키게 된 원동력은 다름 아닌 그들의 자아각성과 민족의식의 성장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의 정치적 지배와 중국문화의 수용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아울러 중국문화의 수용도, 아래와 같이 그 한계가 뚜렷하였다.

“베트남사회에 중국의 문화가 깊숙이 침투한 것은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도 唐代에 와서였다. 唐이 멸망하고 500여년 후 베트남에 세워진 黎氏王朝의 법률이 그 체제나 내용면에서 唐律을 계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이는 唐

3) 한국과 베트남은 근대 이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근세사에서 볼 수 있는 外勢의 침입에 의한 식민통치와 남북분단의 비극 등 역사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4) 이는 漢武帝가 B. C. 108년, 韓半島에 樂浪, 眞番, 臨屯의 세 郡을 설치한 것보다 3년이 앞선다.

文化的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黎王朝의 법에서 唐律을 수용한 부분이 주로 지배자에의 충성, 궁중예절, 관리의 행동규범, 치안의 확보, 호구조사, 세금의 징수 등과 같은 지배권력의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들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결혼풍습, 재산상속 및 기타 가족제도와 관계되는 사항이나 촌락제도 등에서는 베트남의 관습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中國法의 수용문제로부터 추측하건대, 베트남사회에 영향을 끼친 中國文化는 주로 상층문화였으며 이를 받아들인 것은 현지사회의 지배계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

한편 「傳奇漫錄」의 형성에 있어 그 세계관적 기초를 이루는 유학은 13세기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중국측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베트남인들의 민족의식이나 전통문화를 유지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수세기 전부터 발달해 온 베트남의 불교는 唐文化의 영향으로 더욱 융성하였고, 이후 오랜 동안 왕조의 지도이념으로서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李王朝(1009-1225)에 이르기까지 유학은 다만 그 실용적인 면이 채택되어 제도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후 陳王朝(1225-1400)는 개국 초부터 황제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중국식 왕조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감에 따라 佛僧의 정치적 세력은 점차 후퇴하게 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과거제도에 의해 선발된 유교적 소양을 갖춘 文士들이 정치를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히 많은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유교 경전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신진문사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오랜 전란을 겪고 새로 등장한 黎王朝(1428-1788) 역시 일련의 시책에 의하여 유학중흥의 기풍을 더욱 확립시켜 갔다. 여기에는 중국의 끊임없는 지배와 간섭이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조직을 정비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할 그들 스스로의 긴요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중국의 문화적 동화정책에 맞서 베트남 고유의 관습과 토착의 민간신앙을 지키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교 경전의 교육이 베트남의 지식인들을 결코 자기네 전통으로부터 분리시키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무력을 앞세운 중국의 정치적 지배가 베트남의 독립과 자존을 위협하면 할수록, 이를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과 함께 현실자각과 민족의식은 더욱 치열해져 갔다.

5) 劉仁善, 앞의 책, pp. 77~78.

이처럼 베트남은 지정학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중국문화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외세에 대항하는 가운데서 이룩된 현실인식과 민족의식의 고양으로 그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唐의 지배기(8세기 무렵)에는 한자를 빌어서 그들의 말을 표기하는 문자로, 신라의 吏讀과 흡사한 字喃(Chu Nom)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로써 후대에 國語詩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1272년에는 처음으로 「大越史記」가 완성되었고, 이에 다시 전승자료를 가미하여 1479년에 「大越史記全書」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1493년에는 설화집 「嶺南撫怪」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이 무렵의 많은 文士들은 그들의 詩文 속에서 외세에의 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적지 않게 다루고 있다. 물론 이같은 업적들이 기본적으로는 중국 문화 및 문학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다같이 현실인식과 민족문화의 발달이라는 특수성을 지니며, 민족의식의 발흥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⁶⁾

같은 맥락에서, 비록 阮嶼의 「傳奇漫錄」이 剪燈新話를 典範으로 하여 이룩되었다 하더라도⁷⁾, 그것이 여러 가지 발전된 형태를 지니고 있음⁸⁾을 고려한다면, 그 형성배경이 결코 단순한 것일 수는 없다. 외적으로는 先秦散文의 전통⁹⁾에 따른 史記 列傳 및 唐代傳奇와 剪燈新話 등 중국문학의 오랜 영향을 들 수 있을 것이나, 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당대의 역사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작자의 의식이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적 조건은 「傳奇漫錄」

6) 이 부분의 이해에는 劉仁善, 앞의 책이 크게 도움이 되었음.

7) 傳奇漫錄과 剪燈新話가 전체 20편을 4권으로 分卷하여 각권이 5편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나, 각기의 故事를 錄, 記, 傳으로 칭한 점 등 그 형식면에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8) 較之新話 傳奇漫錄已有發展 故事加長 情節更豐富 結構更完整 且故事人物均爲越南人 場景亦多在越南 南國風味甚濃(陳慶浩, 王三慶 主編, 앞의 책, pp. 4-5 참조)

9) 중국 산문문학의 기원이 되는 先秦散文의 성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王熙元, 三傳的文學價值,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 國家文藝基金 管理委員會 主編, 中國文學講話(1)概說, p. 114 참조, 臺灣 巨流圖書公司, 1982)

先秦散文	[哲理散文 歷史散文	[春秋: 周易, 老子, 論語 - 說明性
		[戰國: 墨子, 孟子, 莊子, 荀子, 韓非子 - 論辯性
		[春秋: 尚書, 春秋 - 資料性, 大綱性
		[戰國: 左傳, 戰國策 - 敘述性, 描寫性

이 갖는 개별성과 결부되는 문제로서 외적 조건에 비해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2-2. 「傳奇漫錄」의 著作年代와 文學史的 的의

앞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11세기 이후 베트남은 점차 유교주의로 이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문인층을 형성하게 되지만, 외세에 대한 끊임없는 항쟁을 통해 이룩된 자아각성과 민족의식의 고양에 힘입어, 그들은 결코 민족적, 전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았다.

阮嶼의 저작으로 전해지고 있는 「傳奇漫錄」도 그와 똑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작가 阮嶼에 관한 生卒年代는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武純甫(1697~?)의 기록¹⁰⁾을 통해, 그가 阮秉謙(1491~1585)과 밀접히 交遊하였음을 알 수 있고, 陳益源¹¹⁾이 그의 父名을 밝히고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阮秉謙은 베트남 역사상 아주 뛰어난 학자요, 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535년의 과거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여 한때 조정에서 관직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 때는 黎王朝가 붕괴된 후 왕위를 찬탈한 莫氏와 復權을 노리는 黎氏가 그 세력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혼란과 분열, 대립이 극심했던 시기였다.¹²⁾ 그가 낙향한 이유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漢詩 일천 편 외에 많은 國語詩를 남겼는데, 이를 모은 「白雲國語詩」는 베트남 문학사상 걸작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¹³⁾

그리고 阮嶼의 父 翔縹는 1496년 과거에 급제하여 承宣使를 지내고 尙書에 추증되었다고 하였다.

10) 公餘捷記白雲庵居士阮文道公譜記에서 嶼爲阮秉謙高足이라 하였다(陳益源 校點, 傳奇漫錄, p. 3참조, 臺灣 學生書局 印行, 1987).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아마도 阮嶼가 阮秉謙에 비해 年長者였을 것이라 본다.(陳益源 校點, 傳奇漫錄, p. 3참조)

11) 앞의 책, 같은 곳 참조

12) 黎王朝는 360년간 존속하는 가운데 1527년 莫登庸의 찬탈로 일단 망했다가 그 후 부흥운동에 의해 재건되지만, 명목상의 존속일 뿐 사실상 남북으로 양분되어 싸움이 계속되었다.

13) 劉仁善, 앞의 책, p. 175참조

이로 볼 때, 阮嶼 역시 유학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으로 15, 6세기의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몸소 겪으면서 살아야 했던 인물이다. 何善漢이 쓴 「傳奇漫錄」의 序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배움에 힘써 博覽強記하였고, 문장으로 가문을 빛내고자 해서 과거에 급제했으나, 현령이 되고 겨우 한 해를 넘기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서 은둔생활로 일생을 마쳤다고 하였다. 黎貴惇(1726~1784)의 見聞小錄(卷五, 才品)에서는 그가 벼슬을 버리고 은둔생활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에 대해 莫氏의 簞竊에 의한 黎王朝의 붕괴를 들고 있다. 莫氏의 찬탈과, 그로부터 시작된 莫氏와 黎氏의 치열한 대립상을 지켜보면서, 그는 세속의 불의에 비분을 참을 수 없었고, 실의와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을 것이다. 이로써 이른바 發憤著作의 욕구를 강하게 느꼈을 것이고, 그런 그에게는 「剪燈新話」라고 하는, 이미 오랜 전통을 지닌 중국적 典例가 마련되어 있었다.¹⁴⁾

따라서, 다름아닌 그의 실의와 좌절, 세속적 불의에서 촉발된 비분한 생각들이 어떠하였으며,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지성인의 양심과 비판의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그 寓意性을 살펴보는 것은, 「傳奇漫錄」의 이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¹⁵⁾

이상에서 볼 때, 「傳奇漫錄」의 저작연대는 何善漢의 序로 미루어 1547년이 될 것이나, 이는 그 최종 하한선이 될 것이고, 앞에서 살핀 대로 작자의 저작배경을 고려하면, 개별 작품에 따른 최초 상한선은 莫氏가 왕위를 찬탈(1527년)한 무렵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傳奇漫錄」이 출현한 후에 국내에서 段氏黈의 「傳奇新譜」, 阮演齋의 「傳聞新錄」, 范貴適의 「新傳奇錄」등, 이를 모방한 작품들이 다수 나오게 됨으로써 베트남의 한문소설 중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傳奇小說의 형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은 그의 가장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로 기록될 것이다.

14) 이는 南北朝 시대의 志怪類로부터 唐代的 傳奇를 계승한 것인데, 「傳奇漫錄」이 그 형식면에서 剪燈新話를 典例로 하였음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다.(何善漢 序와 體裁를 참고할 것)

15) 「傳奇漫錄」이 인물, 사건, 배경을 모두 베트남에서 취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그 만큼 현실문제에 밀착된 작자의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3. 「傳奇漫錄」소재 작품¹⁶⁾의 意味構造와 寓意性

3-1. 快州義婦傳—正統王朝 회복에의 염원

작품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줄거리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 快州의 徐達이 벼슬길에 올랐다가 富人 馮立言을 만나 義로써 相交함
- 2) 徐達의 딸 藥卿과 馮立言의 아들 仲遠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혼인함
- 3) 예경은 가족간에 화목하고 남편을 현명하게 내조하여 주위의 칭송을 받음
- 4) 이 때 義安에서 亂이 일어나자 임금은 이를 다스리고자 良守를 구함
- 5) 馮立言의 강직함을 꺼려하는 朝廷 신하들이 그를 함철 생각으로 천거함
- 6) 媿父와 남편을 義安으로 보내고 예경은 남은 가족들을 보살핌
- 7) 얼마 후 예경은 친정 부모가 잇달아 돌아가시자 喪禮를 돕기 위해 快州로 돌아갔다가 祖母 劉氏를 모시게 됨
- 8) 유씨의 外孫에 白將軍이란 자가 있어 재물으로써 예경을 아내로 취하고자 함
- 9) 유씨는 오랜 동안 仲遠로부터 소식 없음을 기화로 예경에게 백장군과 재혼할 것을 강요함
- 10) 이에 예경은 하인을 義安으로 보내 남편의 소식을 알아보게 함
- 11) 馮立言이 죽은 지 4년이 되도록 전쟁으로 길이 막혀 돌아올 수 없었던 仲遠는 예경이 보낸 하인을 따라와서 부부가 6년만에 만나게 됨
- 12) 夫婦之情은 비록 두터웠으나 放情任俠한 남편은 아내의 충고도 아랑곳 않고 商人 杜三과 어울려서 술과 노름으로 지냄
- 13) 仲遠는 자신의 아내를 탐내는 杜三과 도박을 벌였다가 마침내 피많은 그에게 아내를 빼앗김
- 14) 예경은 杜三을 좋은 말로 안심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서는 두 아들을 위로하고 자결함
- 15) 이에 仲遠는 예를 갖춰 장례를 지냄
- 16) 仲遠가 잘못을 뉘우치고 옛 친구를 찾아 생활 방도를 알아보려고 길을 떠남
- 17) 도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죽은 아내의 음성과 흡사하게 아무 때 徵王祠에서 만나자는 소리가 들려옴

16) 「傳奇漫錄」은 四卷 二十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篇名으로 나누어 傳이 7편, 錄이 8편, 記가 5편이다. 이처럼 傳奇(別傳)에서 그 편명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傳奇가 전 양식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특히 반규범화의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념적 일관성을 위해 편명이 傳으로 되어 있는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 18) 仲遠가 정왕사에 가서 예경을 만남
 19) 예경은 남편에게 上帝의 仙語를 엿들었다고 하면서 黎氏 眞人이 나타나
 것으므로 두 아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도록 힘껏 가르치라 함
 20) 仲遠는 혼자 살면서 두 아들을 길러 黎 太祖를 따르게 함
 21) 지금도 快州에 그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함
 22) (論贊)으로부터 從夫라는 것은 義를 따름이며, 집안을 다스리는 자 또한
 마땅히 正義로써 몸소 이끌어 妻子와 天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어리석고 의롭지 못한 남편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초를 겪다가 끝내 一夫從事로 목숨을 끊은 한 아내의 節行을 그린 것이다. 절행의 하나는 남편이 敵地에 나가 오랜 동안 소식이 없음을 빌미로 재혼을 요구하는 백장군과 이에 적극 동조하는 친정 조모의 처사에 굴하지 않고, 늙은 하인의 도움으로 마침내 남편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재물을 탐하는 남편이 한 장삿군과 어울려 도박을 일삼다가 결국은 교활한 장삿군의 뒀에 넘어가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으나, 아내는 남편의 不義를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이에 크게 뉘우친 남편은 어느 날 꿈 속에 아내가 나타나서 두 아들로 하여금 黎氏 姓을 가진 眞人을 따르게 해준다면 자신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자, 그후 혼자서 자식을 잘 길러 黎太祖의 藍山 싸움에 出征케 한다.

죽음이라는 극단적 방법에 의한 아내의 節行은 마침내 불의한 남편으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이 표면적인 내용이며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해명될 수 없는 또다른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 그것은 앞의 것보다 더욱 사회의식적이며 비판적이다.

주인물의 일차적 고난에 직결되는 남편과의 이별에는 불의와 부정을 일삼는 조정신하들과 그로 인한 국정의 문란이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조모 劉氏에 의해 재혼의 명분으로 제시된다. 즉 나라가 비정통자인 오랑캐에 의해 다스려진 후로 조정이 혼탁하고 변란이 끊이지 않아, 남편의 생사도 알 수 없는데다가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의지할 데조차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살펴보면 주인공의 일차적 고난 역시 개인적인 불행의 차원을 넘어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한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일정한 생산도 없이 그저 도박이나 일삼으며 아내까지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 풍조, 모략과 술책으로 富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 결국 義婦의 죽음은 부도덕한 사회와의 맞섬이며, 따라서 고독한 저항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면적 의미는 해결부에 이르러 그 구체성을 띠게 된다. 죽은 아내가 上帝의 시녀로서 옛들은 仙語를 전한다고 하고, 장차 오랑캐가 멸망할 것이니 黎氏 姓을 가진 眞人이 남방에서 나타나거든 두 아들로 하여금 힘써 가르쳐 따르게 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眞人は 오랑캐를 몰리치고, 오랑캐로 인해 크게 타락한 사회를 마땅히 재건해야 하는 기대가치적 인물이다. 그가 바로 黎王朝를 창건했던 黎利이다. 그는 1407년부터 시작된 明의 베트남 지배에 대해, 1418년 타인 호아省 藍山 지방을 중심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하고 드디어 1428년에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였다. 천상의 仙語로 黎氏의 출현을 예고하고 그를 따르게 한 것은 곧 정통왕조의 회복을 의미하며, 아울러 역사의 필연적 당위성을 闡明한 것이다.

그러하여 이 작품은 일부종사로 죽음을 택한 한 義婦의 개인적 삶을 顯彰하는 형식을 빌었으나, 실제로는 진인 출현에 의한 정통 왕조 회복에의 염원을 우의적으로 나타내고 있다.¹⁷⁾ 따라서 의부의 삶 자체는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며 작품이 추구하는 목적적 가치는 그 우의성에 있다 할 것이다.

1527년 莫登庸에 의해 黎王朝가 붕괴되자 黎氏와 阮氏, 鄭氏 등 黎王朝 부흥을 꾀하는 타인 호아 이남의 지배세력들과 山南 이북을 지배하는 莫氏의 두 진영 사이에서 대립과 항쟁이 계속되었고, 이를 기화로 중국(明)의 지배와 간섭이 더욱 심해졌다. 여기서 正統論을 앞세운 작자의 진인 출현의 염원은 곧 黎王朝 부흥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 성격을 갖는다.¹⁸⁾

17) 표면상의 줄거리인 義婦의 節行은 오히려 부차적 의의를 지니는 데 반해, 사회역사적 상황과 관련해서 거기에 우의된 작자의 의식이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의부의 절행은 객관적 史實 여부에 구애받지 않으며, 따라서 先系와 출생 등 사실성을 부여하는 형식적 제반 장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체제, 입전대상 등 傳樣式이 갖는 형식의 자유성 내지 개방성은 이처럼 작자의식의 개입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작품의 우의성을 고려할 때, 표면적인 서술 내용은 작자의 의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꾸며진 이야기로 차라리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고, 작자의 서술의도와 관련된 사회역사적 상황이 보다 더 객관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傳의 구체적 서술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작품외적 세계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작자의 의도가 작용하는 데 따른 傳의 허구화는 필연적이다.

18) 黎王朝의 부흥은 1592년 黎維潭(世宗)에 의해서 이룩되었다.

3-2. 木棉樹傳—濟世安民의 憂國精神

작품의 대체적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程忠遇는 北河의 美男子로 집안이 부유한 商人이다.
- 2) 그는 배를 타고 남쪽으로 떠나 柳溪橋 근처에 머물면서 장사를 한다.
- 3) 그는 우연히 東村의 한 여인을 몰래 훑쳐 보고 나서 그리워하게 된다.
- 4) 어느 날 그는 여인이 시녀에게 오늘 밤 柳溪橋에 구경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날이 저물자 미리 다리에 나가 기다리다
- 5) 人定 무렵, 여인이 시녀와 함께 琵琶를 가지고 나타나 好速 없음을 탄식하고 征婦詞(秋思詞)를 타다
- 6) 여인이 세상에 知音이 없음을 탄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나다
- 7) 이 때 程忠遇가 여인 앞에 나타나 자신이 知音者라 하자, 여인은 하늘이 주신 인연이라 말하고 은혜에 고마워하다
- 8) 忠遇의 물음에 여인은 이름이 葉卿이고, 마을의 大姓인 晦翁의 손녀로 일찍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黃泉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 9) 두 남녀가 함께 舟中에 들어 즐거움을 나누고, 여인이 그 즐거움을 시로 나타내어 忠遇에게 설명을 해주자, 그는 여인의 글 솜씨를 칭찬하지만, 여인은 오히려 문장은 한 무더기 황토일 뿐, 이승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귀하다고 한다
- 10) 날이 새려 하면 헤어지고 해가 저물면 만나기를 거의 한 달쯤 하였다
- 11) 같은 商人 중에 유식한 사람이 있어 忠遇에게, 無媒之女를 만나 즐기는 것은 後患이 두려운 만큼, 사실 여부를 알아보라고 권하다
- 12) 이에 忠遇가 여인의 거처에 가기를 청하자 여인은 남의 이목을 꺼려 밤에 그를 데리고 가다
- 13) 東村에 이르니 대나무 울타리 속에 비루한 茅屋 한 채가 있었다
- 14) 忠遇가 문을 열고 살펴보니 비린내가 나고 방 가운데는 ‘葉卿之柩’라고 쓴 붉은 棺이 있었다
- 15) 이에 놀란 忠遇가 도망하려 하자, 여인이 길을 막고 서서 전날에 맺은 同穴之約을 지키고자 하면서 잡아 끄는데, 다행히 옷소매가 찢어져 겨우 도망하다
- 16) 忠遇가 다음 날 아침 東村으로 나가서 晦翁 손녀의 무덤이 사실임을 알고, 그에 놀라 重疾을 앓게 되어 자리에 눕다
- 17) 忠遇가 여인을 만나고자 하여 도망치려 하므로 뱃사람들이 그를 밧줄로 묶다
- 18) 뱃사람들이 모두 잠든 날 밤, 忠遇가 도망하여 여인의 棺을 안고 죽었으므로 그 곳에 묻어주다
- 19) 그 후부터 두 남녀가 함께 돌아다니면서 남의 제사 재물을 구하고, 조금이라도 제 뜻과 같지 않으면 害惡을 일삼다
- 20) 마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 무덤을 파서 棺을 부수고 강물에 버리다
- 21) 이에 남녀는 절 근처 木棉樹에 의지하여 妖鬼가 되매, 나무를 베려고 해

도 벨 수가 없다

- 22) 道人이 절에 留宿하다가 두 남녀가 알몸으로 웃고 떠드는 것을 보고, 다음 날 마을 노인에게 이를 알리고 民風의 저속함을 한탄하다
- 23) 노인이 妖鬼退治의 방도가 없음을 걱정하며 道人이 이를 도모하다
- 24) 道人이 呪文을 외자 木棉樹가 뽑히고, 두 남녀는 공중에서 神兵들에게 끌려가다
- 25) 道人은 백성들이 주는 재물을 뿌리치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다
- 26) (論贊) 自古로 천하에 귀신이 없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욕심을 가져 이를 범하게 되므로 그 잘못을 깨치게 함이 君子의 忠厚한 뜻일 것이다

이상에서 작품의 내용은 어느 무식한 장삿꾼이 女鬼에게 홀려서 非命橫死하고, 함께 妖鬼가 되어 民風을 해치고 온갖 害惡을 일삼아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으나, 마침내 신통력을 지닌 道人이 나타나 이를 퇴치한다는 것이다.¹⁹⁾ 그리하여 두 남녀 妖鬼는 적극적으로 배격되어야 할 대상으로, 그리고 신통력을 발휘해서 妖鬼를 퇴치하는 道人은, 앞서의 眞人과 마찬가지로 濟世安民의 願望價值的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 함께 대립적 인물구조를 이룬다. 애초에 女鬼는 이승에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난하게 살다가 남편에게서조차 일찍 버림을 받아 황천에 들었고, 그 원통함으로 말미암아 異性과의 사랑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던 터에, 스스로의 伸冤을 위해 이승을 찾아온 冤鬼이다. 그리고 程忠遇라는 상인은 文盲인데다가 당대 사회가 추구하는 합리주의적 생활 규범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인물로 일종의 愚民이다. 때문에 그는 귀신에게 쉽게 현혹되고, 또 그로 인해 병들어 죽은 뒤에는 女鬼와 함께 당대 사회의 규범에 위배되는 온갖 淫亂을 자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갖는 부정적인 요소는 합리주의적 가치 판단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反儒敎의인 관념과 행동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반백성들에게 심각한 고통이 되고 있으나, 마을 노인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요괴 퇴치의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초월적 존재인 도인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 위와 같이 합리성을 주장하고 비합리성을 적극 배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인의 신통력을 통해 요괴를 퇴치한다는 불일치는 어디에 기인하는

19) 따라서 이 작품의 표제는 일반적 관행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 여기서 木棉樹는 인물이나 사건 같은 입선 대상의 중요성에 비해 극히 부수적인 소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것일까? 이 작품의 主旨가 어디까지나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것임은 물론이다.²⁰⁾ 그렇다고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것처럼 유교의 합리주의적 사고에 대해 비합리적인 이단의 배격을 주장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는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도인의 신통력을 통한 요귀 퇴치라는 사건 자체가 갖는 불합리성에 의해 명백해진다. 이렇게 볼 때, 女鬼는 정통 왕조를 유린하고 惑世誣民으로 亂世를 초래한 莫氏家를 가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莫登庸에 의한 黎王朝의 비극적 종말이라는 당대적 삶을 통해, 작자는 유학자로서의 사회의식적 비판 정신에서 비정통자인 莫氏를 이단적 존재인 귀신에 가탁하고 君子論에 대해 심각한 자기 반성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자가 논찬을 통해 천하에 귀신이 없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욕심을 가져 미혹에 빠지게 된다고 하고, 그 잘못을 깨치게 함이 군자의 忠厚한 뜻이라고 주장한 것은 결국 난세를 당해 이루어진 자기반성인 동시에 자기확신이었다. 따라서 도인은 濟世安民을 위한 眞人の 또다른 형상으로서, 작자는 이를 통해 亂世에 처한 작자의 우국정신을 우의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3-3. 東潮廢寺傳²¹⁾ — 非正統王朝의 허구성 폭로

작품의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陳나라 때에는 귀신을 크게 숭상하였는데 東潮縣이 더욱 심했다
- 2) 後陳 簡定帝 때 兵火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 3) 吳나라 군대가 물러가고 文斯立이 東潮縣에 부임하였다
- 4) 이때 도적이 있어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모조리 거두어 가다
- 5) 文斯立이 좀도둑인 줄 알고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夜讐을 돌게 했으나 도둑의 횡포는 더욱 심해지다
- 6) 文斯立은 도둑이 魔鬼임을 알고 널리 名師를 찾았지만 도둑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 7)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에게 하소연하도록 했으나 소용이 없다
- 8) 文斯立이 주역에 능하다는 王先生을 찾아 점을 치니 神師를 만나 험것 청하면 도둑의 害를 없앨 수 있다고 하다
- 9) 文斯立이 父老와 함께 縣門에 나가 살피니, 해질 무렵 산중에서 문득 활을 든 사내가 나타나다

20) 論贊을 통해 王忠의 論衡을 들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21) 이본에 따라서 東潮廢寺傳 외에 東潮廢寺錄, 東潮廢寺記로 나타나고 있음

- 10) 모두들 사내 앞에 나아가 사정을 아뢰었으나 사내는 다만 사냥꾼이라고 하면서 굶이 사양하다
- 11) 文斯立이 사내를 神師로 알고 지키매, 사내는 할 수 없이 講을 받아들여 기로 하고 縣의 적막한 곳에 머물다
- 12) 사내가 귀신을 물리칠 결심을 하고 밤중쯤 몰래 나와 版橋의 서쪽에 이르다
- 13) 어둠 속으로 사람 모습의 여러 귀신들이 보였는데, 그들은 웅덩이의 물고기를 잡아 먹으며 서로 웃고 떠들다가 다시 사탕수수밭으로 가서 단 물을 빨아마시다
- 14) 사내가 활을 쏘아 맞히자 귀신들이 도망가면서 큰소리로 꾸짖다
- 15) 사내가 마을 사람들을 깨워서 도망간 귀신들을 찾게 하다
- 16) 땃자국을 따라서 廢寺로 들어가니 佛法을 지키는 神將들의 허리에 모두 화살이 꽂혀 있다
- 17) 모두들 이상히 여겨 神像을 넘어뜨려 부수자, 잘못된 水神에게 있는데도 오히려 그를 다른 우리만 禍를 만났다고 하는 말소리가 들리다
- 18) 사람들이 水神廟로 가서 神像을 살피니 얼굴빛이 변하고 물고기 비늘 여러 개가 입에 물어 있어, 즉시 水神像도 부숴버리다
- 19) 사내가 厚謝를 받고 떠나간 후로 귀신의 영향은 사라지다
- 20) (論贊) 불교는 無益有害할 뿐이니 불경과 도술책을 태워 버리고 절을 헐어 일반 주택으로 만든 후에야 그 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陳王朝를 배경으로 불교의 폐해를 비판하고 있다. 즉 오랜 兵火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 후 東潮縣에는 매일같이 도둑이 들끓어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훔쳐갔다. 이에 縣令인 文斯立이 처음에는 좀도둑으로 잘못 알고 백성들로 하여금 야경을 돌게 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했지만, 도둑들은 오히려 남의 아내를 겁탈하는 등 그 피해가 더욱 심해졌다. 마침내 그것이 魔鬼임을 알고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부처님에게 빌게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文斯立은 周易에 능한 王선생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 어떤 神師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간청하여 도둑들을 잡고 보니, 廢寺의 守門神將들이었다. 그들은 오랜 전란을 통해 부처님을 신봉하던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고 그로 인해 佛供이 끊이자, 굶주림에 전디다 못하여 결국 백성들에게 작폐를 하게 되었고, 그날 밤에도 水神들을 좇아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神師가 쏜 화살에 맞았던 것이다. 이에 백성들은 護法像과 水神像들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다만 陳王朝(1225~1400)의 역사적 사실 기록으로 이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먼저 비현실적인 내용 때문에 그러하며, 阮巖가 새삼스

럽게 불교의 폐해를 거론할 이유도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미 1428년에 黎王朝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중국식 왕조체제와 유학존중의 기풍이 확립되어, 陳王朝에서 누리던 佛僧과 道士의 특권은 철회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요구되었으며, 시험에 실패하면 환속되어 호적에 올려지고 농업 생산에 필요한 人力으로 충당되었다.

그런데 黎王朝에 비해 陳王朝의 역대 황제들은 불교를 숭상하고 禪의 경지를 추구하여 자신들을 大師라 칭하면서 곳곳에 佛像을 建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같은 불교존중은 오히려 陳王朝가 지닌 비정통성에 기인한 것으로 인위적인 성격이 강했다. 본래 陳氏는 중국 福建지방 출신의 이주민으로서 고기잡이와 해적행위를 통해 富를 축적하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게 되었으며, 시대의 혼란을 틈타 왕권을 빼앗게까지 되었다. 그 때문에 陳王朝의 위치는 자연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앞의 정통 李王朝를 대신하는 것이 이미 前世에 예정되었다는, 다시 말해서 陳王朝의 정통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太宗(1225~1258)의 父인 上皇 陳承이 어려서 어느 驛亭에서 쉬고 있는데, 한 승려가 나타나 그의 용모를 보고 후일 몹시 귀하게 될 분이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려 했으며, 따라서 불교존중과 불상건립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비취볼 때, 阮嶼의 관심은 결코 지난 시대 불교존중의 기풍과 그로 인한 폐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陳王朝의 非正統性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의 시대는 이미 유학존중의 기풍이 확립되어 있어, 쇠퇴의 길로 들어선 불교가 전혀 위협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데다가, 그 또한 독단적, 폐쇄적인 의식의 소유자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黎王朝의 안정과 번영은 聖宗(1460~1497) 시대를 절정으로 하여 점차 기울기 시작하였으니, 憲宗(1498~1504), 肅宗(1504), 威穆帝(1505~1509), 襄翼帝(1509~1516)등이 요절하거나 폭정을 거듭함에 따라 각지에서 반란이 빈발하였고, 혼란의 와중에서 군사력을 강화하여 마침내 禪讓의 형식으로 帝位에 오른 이가 중국 廣東지방 蛋民 출신 이주민으로 武科에 급제한 莫登庸이다. 이로써 베트남의 정통 왕조는 또다시 끊기게 되었으니, 莫氏 정권의 출현은 그 성격상 陳王朝과 크게 닮은 바가 있었다. 莫氏 또한 민심의 동요를

두려워 해서 려왕조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작자의 기본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陳王朝가 스스로의 비정통성을 감추기 위해 불교를 존중했다는 것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허구성을 내용으로 하여 그 권위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데서 작자의 우의성을 살필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곧 陳王朝의 존재의미를 부정한 것이 되며, 아울러 정통 黎王朝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莫氏 정권에 대한 간접적인 부정이 되는 것이다.

3-4. 翠綃傳—不正한 臣下로 인한 正統王朝의 悲運

대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陳나라 때 建興의 余潤之는 詩聲으로 나라에 이름을 드날리다
- 2) 그가 불일이 있어 讓江鎮 元帥 阮忠彥을 찾아가자 阮公이 잔치를 열어 환대하는데 歌姬 중에 美貌가 빼어난 翠초가 있다
- 3) 阮公이 그에게 歌姬 중 마음에 드는 자가 있으면 취하라고 하며 그는 詩를 지어 翠초를 택하고 술에 취해 놀다
- 4) 그가 阮公에게 작별을 고하자 阮公은 翠초를 데려 가게 하다
- 5) 翠초는 매우 총명해서 글을 잘 하다
- 6) 그가 鄉試에 응하려고 翠초와 함께 집을 떠나 江口에 도착하다
- 7) 매마침 설날이 되어 翠초는 禮佛하기 위해 報天塔에 가다
- 8) 申柱國이라는 권력자가 우연히 그녀를 보고는 붙잡아 가다
- 9) 그가 조정에 호소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소용이 없다
- 10) 어느 날 그는 翠초가 임금의 嬖戚들과 함께 비단 수레를 타고 지나는 것을 보았으나 말 한 마디 건네지 못하다
- 11) 그는 翠초가 기르던 앵무새를 통해 겨우 소식을 전하다
- 12) 翠초가 그의 편지를 받아보고 간절한 그리움을 적어 보내다
- 13) 이로 인해 翠초는 병이 들었는데 차라리 죽겠다고 하여 목을 매다
- 14) 申柱國이 이를 말리자 翠초는 余郎을 부르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다
- 15) 申柱國이 할 수 없어 余潤之를 불렀으나 翠초에 관해서는 병을 핑계로 언급을 기피하다
- 16) 翠초는 余郎이 왔다는 것을 알고 남의 눈을 피해 그의 방에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우연히 그의 시를 읽게 되다
- 17) 翠초가 侍婢를 보내 余郎를 모시게 하고 그녀를 통해 소식을 서로 전하다
- 18) 한 해가 저물어 除夕이 되매 余郎이 申柱國에게 잠시 이별의 말이나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때가 오면 돌려줄 테니 늦는 것을 탓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다

- 19) 실망한 余郎이 侍婢를 통해 돌아가겠다는 뜻을 翠초에게 전하게 하다
- 20) 翠초는 侍婢를 통해 余郎과의 재회가 정월 보름날 밤 東津의 물놀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테니 이를 잘 도모하라는 부탁을 전하다
- 21) 余郎이 돌아오다가 길에서 늙은 奴僕을 만나 翠초와의 약속을 알리자 그는 이번 일에 힘을 다하겠다고 하다
- 22) 奴僕은 정월 보름날 밤 東津에 나가 翠초가 탄 수레를 끌고 도망하다
- 23) 翠초가 禍를 피하기 위해서는 멀리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余郎의 친구에게 의지하다
- 24) 申柱國이 奢侈한 죄로 벌을 받게 되자 余郎은 서울로 가서 進士에 오르고 부부가 偕老하다
- 25) (論贊)德 있는 임금은 不正한 사람으로 신하 삼기를 부끄러워 하고 德 있는 선비는 不正한 여자로서 아내 삼기를 부끄러워 하거늘 余濶之 같은 이는 정말로 어리석다 할 만하다

이 작품이 지닌 소재적인 의미는 余濶이라는 인물이 겪은 수모와 고난이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삼은 데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만 이와 같은 표면적 의미의 전달에 작자의 궁극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논찬을 통해서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삼은 데서 결국된 어느 선비의 고난을 통해 결국은 부정한 신하로 말미암아 한 임금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서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陳은 非正統 王朝로서 작자에게 있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래 중국 福建지방 사람으로 베트남에 이주하여 어업과 해적행위로 성장한 陳氏家의 대두는 1208년 지방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궁중에 난입했을 때, 李王朝의 惠宗(1211~1224)이 황태자로서 陳李의 집에 피신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의 딸을 황후로 맞아들인 데서 비롯된다. 이를 계기로 陳氏家의 여러 형제들은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였고, 1225년에는 드디어 베트남 최초의 長期王朝(1009~1225)를 무너뜨리고 陳王朝를 건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陳王朝를 무너뜨린 胡氏家 역시 중국 浙江지방 출신의 이주민으로 황실과의 결혼을 통해 인척관계를 맺음으로써 정권을 장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胡季犛는 그의 두 고모가 明宗(1314~1329)의 후궁이 되어 한 사람은 藝宗(1370~1372)을 낳고, 또 한 사람은 睿宗(1373~1377)을 낳은 것을 배경으로 등장했고,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자신의 從妹를 황

宗과 결혼시키는 한편, 藝宗의 妹氏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는 廢帝(1378~1388)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장녀와 결혼한 順宗(1389~1398)을 즉위시켰으며, 다시 그를 폐위시키고 세 살밖에 안 된 少帝(1398~1400)를 즉위시키는 등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스스로 황제를 칭하였다.

한편 작자 阮嶼에게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莫氏家の 등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憲宗(1498~1504) 이후 失政으로 왕권이 크게 약화된 틈을 타서 지방 각지에서 반란이 빈발하였고,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문신들보다는 무신들이 크게 우대되었으며, 이 혼란의 와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 莫登庸이었다. 그는 水上生活을 하던 蛋民 출신 이주민으로 정통론이나 명분론에 크게 위배되는 인물이다. 그러한 그가 권력을 장악하자 이내 昭宗(1516~1526)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고, 한때 궁성을 탈출해서 鄭綏라는 이에게 의탁하기도 했지만 끝내 붙잡혀 살해되고 말았다.

이 밖에도 黎王朝의 초기 太宗(1434~1442)은 峙崙山을 순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은퇴생활을 하고 있던 당대 제일의 시인이며 학자 정치가인 阮薦을 방문했다가 그의 쫓에 매혹되어, 그녀를 데리고 귀경하던 중 北寧省에 이르러 조정신하들의 음모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결국 이상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통 왕조가 겪는 고난 내지는 비극적 종말을 그려보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고, 실재성을 표방하는 사실기록의 수법으로 그 의도를 내면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3-5. 南昌女子傳²²⁾ - 不信風潮에 대한 覺醒 촉구

대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武說은 南昌의 여자로 정숙하고 인물이 빼어나다
- 2) 같은 마을 張生이 황금 백냥을 주고 武娘과 결혼하다
- 3) 장생은 의심이 많아 禁制가 심하나 아내는 언제나 공손하다
- 4) 占城之役을 당해 張生이 尺籍에 편입되어 집을 떠나매 노모와 아내가 무사귀환을 당부하다
- 5) 아내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誕이라 하다
- 6) 아내는 병든 孀母의 治病은 물론, 죽은 후의 治喪에 온갖 정성을 다하다
- 7) 이듬 해 장생이 돌아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노모의 무덤을 찾아가다

22) 이본 중에는 南昌女子錄이라 한 것도 있음

- 8) 장생이 아들에게 그가 없는 동안 아내와 행동을 함께한 丈夫가 따로 있었다는 말을 듣고 아내를 의심하다
- 9) 이에 아내가 결백을 주장하지만 끝내 장생이 믿지 아니하다
- 10) 아내가 목욕재계하고 黃江에 나아가 결백을 하늘에 호소하고 투신하다
- 11) 장생이 아내의 주검을 백방으로 찾았으나 찾지 못하다
- 12) 하루는 장생이 밤에 등불을 켜놓고 있는데, 아들이 燈影을 가리키면서 丈夫가 또 왔다고 하며 비로소 아내의 원통함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침
- 13) 이 때 마을에 潘郎이란 뱃사공이 있었는데 꿈에 한 여자가 나타나 슬피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다
- 14) 한 어부가 거북을 바치매 潘郎은 꿈을 생각하여 살려보내다
- 15) 胡王朝 때 明나라가 쳐들어오자 潘郎이 피난하던 중 폭풍을 만나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시체가 물 속 龜洞에 가다
- 16) 그곳 靈妃가 보고는 나를 살려준 은인이라 하며 仙藥을 먹여 살려내다
- 17) 靈妃는 潘郎에게 자신을 南海 廣利王의 부인이라 소개하고 은혜를 갚겠다며 잔치를 열다
- 18) 潘郎은 舞姬들 중 武娘과 닮은 자가 있음을 이상히 여기고 있는데 잔치가 끝나자 그 舞姬가 潘娘을 찾아와 원래 같은 마을 사람이라 말하다
- 19) 潘郎이 武娘에게 이곳에 온 연유를 묻자 水神이 자신의 죄 없음을 슬퍼하여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고 답하다
- 20) 潘郎이 이승에 돌아갈 뜻이 있느냐고 묻자 武娘은 이미 남편에게 버림 받았으니 돌아갈 뜻이 없다고 답하다
- 21) 潘郎이 다시 先人の 집과 무덤은 누가 보살피느냐고 하자 武娘은 胡馬는 北風에 울고, 越鳥는 南枝에 깃들인다고 하였으니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라 말하다
- 22) 이튿 날 靈妃가 潘郎을 물고기에 태워 밖으로 내보내며, 武娘이 그에게 금비녀를 주면서, 만약 나를 위해 강가에서 解冤굿을 올린다면 마땅히 나갈 것이라는 말을 張生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다
- 23) 張生이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潘郎이 금비녀를 내보이자 부탁한 대로 黃江 가에서 사흘 동안 제사를 지내다
- 24) 武娘이 비단 가마를 타고 물결 가운데 나타나 張生이 급히 불렀으나 고맙지만 다시 인간 세상에 나아갈 수는 없다고 하면서 사라지다
- 25) (논찬) 疑似之嫌이 武設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丈夫된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武設이라는 정숙한 여자가 남편에게서 뜻하지 않게 의심을 받고 곤경에 처하였으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자 스스로 강물에 투신하였다가 마침내 하늘의 도움으로 결백을 밝히고 伸冤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일 가운데 때로는 드러내 놓고 분명하게 밝힐 수 없는 까닭으로 오히려 의혹을 사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또 흔히

사소한 일에서 발단된 의혹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작자가 논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漢의 光武帝는 참조하는 말을 끝이듣고는 老將馬援을 의심했고, 曹操는 말 한 마디에 미혹되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呂伯奢를 죽이게 되었다. 여기 張生 역시 철부지한 어린 아이의 말 한 마디에 미혹되어 정숙한 아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작자는 丈夫된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이 작품이 무설이라는 특정 인물의 행적이나 천우신조와 같은 허구적 사건이 갖는 흥미를 위해서 이룩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억울한 죽음은 마땅히 신원이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장부는 모름지기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논찬은 이 작품이 작자의 당대적 삶과 깊이 관련된 비판적 사회 의식을 특정 인물의 개인적인 행적과 관련시켜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즉 黎王朝의 정통이 끊어진 후 莫氏家와 이에 저항하는 黎氏 지지세력들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는 한편으로, 양측의 요청으로 明나라는 자연스럽게 간섭의 손길을 뻗치게 되었는데, 이같은 혼란의 와중에서 사회기강이 전반적으로 허물어져 갖가지 불신과 모함, 음모와 배신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무고한 목숨이 수없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상은 이 작품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는 胡王朝의 그것과 매우 흡사했다. 진왕조의 황제들을 차례로 폐위시키고 1400년에 스스로 제위에 오른 胡季犛는 가중되는 명나라의 압력을 우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위를 아들 胡漢蒼에게 물려주고 곧 명에 사절을 보내 진씨의 후사가 끊겼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것이라 하여 책봉을 요청하였다. 이에 명나라는 아무 것도 모르고 처음 책봉을 승인하였으나 1404년에 진왕조의 遺臣인 裴伯善가 조정에 나타나 호씨 부자의 찬탈사실을 알리고, 이어 진씨의 일족이라고 자칭하는 陳添平이 와서 그같은 비리를 호소하자 이를 구실로 1406년 국경을 넘어 쉽게 베트남을 점령하고 호씨 부자를 붙잡아 갔다. 호씨 부자는 군사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왕조의 제위를 찬탈했다는 이유로 군대 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고, 더욱 이를 간파한 명군이 진씨를 복위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전공세를 편 결과 군대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다시 베트남에 대한 명의 동화정책이 실시되는 가운데서 1407년 진왕조 藝宗의 둘째 아들이 반항세력을 이끌고 황제를 칭하여 簡帝라 하고

연호까지 제정하여 일시적으로 세력을 떨치게 되지만, 그의 신하 중 가장 유력자인 鄧悉과 阮景眞 등을 의심해서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킨 결과, 심각한 내부분열을 초래하여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처럼 사회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진 까닭은 중국 또는 몽고와의 끊임없는 전쟁에다 陳, 胡, 莫氏 등 비정통자들의 왕위 찬탈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대적 민족적 아픔이 지성인의 의식에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했고, 南昌女子傳을 통해 구체적인 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6. 李將軍傳-至公無私한 天道의 再闡明

대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後陳 簡定帝가 즉위한 후 여러 호걸들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도왔다
- 2) 李友之는 농부 출신으로 성질이 사나웠지만 전투에 능해 장군이 되었다
- 3) 이장군은 권세가 높아지자 不法을 자행하고 儒士를 원수같이 여기다
- 4) 衛士가 이장군의 집에 들어 구걸하매 이장군이 觀稻를 청하다
- 5) 술사가 그에게 이미 인심을 거역했으니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웃으며 하늘도 나의 힘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다
- 6) 술사가 다시 길흉을 알리는 구슬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그는 놀라며 구원할 방도를 묻다
- 7) 술사가 그에게 만약 이제라도 남의 아내와 토지를 되돌려준다면 지은 죄의 萬分之一이나마 감할 수 있다고 하다
- 8) 이장군은 수년간에 걸쳐 이룬 성공을 가벼이 버릴 수 없다고 거절하고 더욱 狂暴해지다
- 9) 이장군이 모친과 자식의 간청에도 끝내 改愆이 없다가 40세에 죽으며, 사람들이 安堵하며 서로 말하기를 착한 이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악을 저지른 자는 집에서 편안히 숨을 거두니 과연 天道가 있느냐 하다
- 10) 이보다 앞서 阮遠라는 이는 평소 절개를 숭상한 인물로서 이장군의 아들 叔歎과 친숙한 사이였는데 이때 죽은 지가 3년이 되었다.
- 11) 叔歎이 어느 날 새벽에 길을 가는데, 阮遠가 나타나 너의 先人이 곧 審問을 받을테니 보고 싶으면 저녁에 사람을 보낼 것이며, 보고 나서 발설할 경우 禍가 미칠 것이라 하다
- 12) 밤중쯤 鬼卒이 여럿 나타나 叔歎을 데리고 궁전에 이르니 엄숙한 가운데 왕이 있고 곁에 쇠옷을 입은 이들이 칼, 도끼 등을 들고 있다
- 13) 잠서 후 阮遠를 포함한 官員 넷이 서류를 들고 나타나 왕 앞에 꿇어 앉아서 차례로 읽는데, 某氏는 세상에 있을 적에 결양이 지극하고 몸을 바쳐서 나라를 빛냈으니 仙品을 제수하자 했으며, 다음으로 某氏는 덕을

경멸하고 貧濁했으므로 南曹에 알려 年籍에서 삭제하자고 했고, 또 何某는 疾疫을 당해 施藥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으므로 三世의 복록을 누리도록 하자고 했고, 끝으로 丁某는 종족과 형제에 不睦한 죄가 막대하므로 餓鬼가 되게 하자고 아뢰자 왕이 허락하다

- 14) 이어 붉은 옷을 입을 관원이 왕 앞에 꿇어 앉아 탄핵문을 읽는데, 李友之는 포악하기가 맹수보다 더한 奸人으로 중죄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다
- 15) 이에 吏人들이 이우지를 끌어내 매질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혹하다
- 16) 왕이 어찌해서 1년이나 시켜줬느냐고 묻자 관원이 답하되 죄악이 너무 커서 경솔히 논의할 수 없었다고 하고 그 죄목을 자세히 아뢰다
- 17) 왕이 듣고 李友之에게 정육과 탐심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조처한 후 인륜을 거역한 죄를 들어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다
- 18) 叔款이 이를 보다가 소리 내어 울자 鬼卒들이 달려들어 입을 막고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공중에서 떨어뜨리다
- 19) 叔款이 크게 놀라 정신을 차려 보니 家人들이 둘러앉아 울다가 말하기를 죽은 자 이미 이들이 지났으나 微溫이 남아 있어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고 하다
- 20) 叔款이 入山 採藥하다
- 21) (논찬) 天道는 至公無私하지만 사람이 제대로 이를 알지 못할 뿐이다.

세상에 亂臣賊子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李將軍傳은 전쟁과 政變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武人들이 크게 득세하는 한편 유교적 이념이 퇴색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고발하고 있다. 이 작품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는 後陳(1407~1414)은 尙武精神이 매우 강했다. 그 이유는 明나라가 무력으로 胡王朝(1400~1407)를 무너뜨리고 베트남을 식민지(1407~1427)로 점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해서 여러 세력들이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후진도 그 중의 한 집단으로 明軍과의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함은 물론, 胡王朝에 대해 陳王朝의 회복이라는 이종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교 경전의 교육과 文士層의 형성이 이미 오랜 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몽고의 外侵에다 거듭되는 국내의 정변을 배경으로 무력 승상의 정치적 사회적 기풍이 형성되었고, 마침내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로 인한 폐해는 유교적 정통론이나 명분론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작자 阮嶺는 黎末과 莫初의 역사적 상황에서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다. 黎王朝는 불행하게도 肅宗(1504)과 威穆帝(1505~1509)에 이르러 조정은 權臣들간의 세력

각축장이 되어 쿠데타와 살육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위목제의 從弟인 簡修公은 위목제를 살해하고 襄翼帝(1509~1516)가 되었으나 다시 軍權을 장악하고 있던 鄭惟產에게 살해되었으며, 양익제의 아들 光治는 재위에 오른 사흘만에 鄭惟岱에 의해 피살되었다. 또 昭宗(1516~1526)은 鄭綏와 莫登庸 등 권신들이 벌이는 세력다툼의 와중에서 희생되기도 하였다. 마침내 무과 출신의 莫登庸은 최고의 권력자로 부상하여 黎王朝에 충성을 바치는 관리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恭皇帝(1527)를 강압하여 禪讓의 형식으로 제위에 올랐고, 공황제는 수 개월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같은 亂世는 至公無私한 天道를 깨닫지 못하고 악행을 자행하는 난신적자들에 의해 야기된 것인 만큼 작자는 이들을 경계하고 천도를 재천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곧 유자적 지성을 갖춘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사적 소명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3-7. 麗娘傳—人倫의 正道에 대한 認識 促求

대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阮談은 陳渴眞의 外從 누이로서 商婦 李氏와 친하게 지냈는데 둘 다 식이 없다
- 2) 완씨와 이씨는 神靈에게 祈子精誠을 올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서로 배필을 삼자고 약속하다
- 3) 완씨는 딸 麗娘을 낳고, 이씨는 아들 佛生을 낳다
- 4) 여랑과 불생이 자라면서 서로 왕래하여 정이 매우 두터웠다
- 5) 胡王朝 때 陳渴眞이 禍를 당해 여랑이 入宮하게 되자 불생은 크게 실망하다
- 6) 불생이 꿈결에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난간에 帛書가 붙혀 있다
- 7) 불생은 자중자에하여 다른 곳에 혼인하라는 여랑의 글을 읽고 슬퍼하며 끝내 다른 곳에 혼인하지 않는다
- 8) 胡末에 明將 張輔가 서울로 쳐들어오다
- 9) 여랑은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랑이 인질로 잡혀갈 것을 생각하여 그녀를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나다
- 10) 불생은 敵將 呂毅에게 婦女 수백 명이 잡혀감을 알고 그 속에 여랑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나 구할 방도가 없다
- 11) 때마침 後陳 簡定帝가 起兵하매 불생은 이를 이용하여 여랑을 구할 목적으로 明軍을 격퇴할 책략을 올리다
- 12) 簡定帝가 기특하게 여기고 軍士를 주어 적을 치게 하다
- 13) 불생이 군사들에게 陳王朝 부흥을 외치자 士氣가 올라 敵을 連破하다
- 14) 明軍이 回軍하매 불생은 군사들과 헤어져 北嶽驛으로 가다

- 15) 불생이 驛舍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 사정을 말하자 할머니가 답하기를, 明軍이 회군할 즈음에 阮氏는 고국을 떠나 北朝의 孤魂이 되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여 朱, 鄭 두 夫人과 함께 자결하였고, 明將 張輔는 그 절개를 귀히 여겨 禮로써 葬事했다고 하다
- 16) 할머니가 불생을 阮氏의 무덤으로 데려가매 불생은 통곡하다
- 17) 불생이 무덤 곁에서 자는데 밤중에 麗娘이 나타나 울면서 저의 뜻과 시대가 서로 어긋나 서로 헤어지게 되었으니 胡季齋의 득세를 누가 짐작이나 했었느냐고 하소연하다
- 18) 불생이 移葬하겠다고 하자 麗娘은 이미 朱, 鄭 두 夫人과도 정이 깊어 버릴 수 없고, 경지도 좋아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고 하여 사양하고는 답이 몰자 급히 떠나가다
- 19) 다음 날 불생은 棺材를 준비해서 여랑과 주, 정 두 부인을 改葬하다
- 20) 밤에 여랑과 주, 정 두 부인이 불생을 찾아와 謝恩하다
- 21) 불생은 집으로 돌아와 再娶하지 않고 지내다
- 22) 黎太祖가 起兵하매 불생은 將兵으로 나아가 明軍을 물리침으로써 宿恨을 씻다
- 23) (논찬) 믿음이 正義와 일치하면 남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생이 결혼하지 않고 先人の 後嗣를 끊은 일은 얻은 것은 작고 잃은 것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작품은 불생과 여랑이 출생 전 부모들에 의해 일찌기 배필이 되기로 약속되었고, 또 두 사람 사이의 정이 매우 두터웠는데, 戰亂의 와중에서 여랑이 그만 자결하게 되자 불생은 끝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일생을 마쳤다는 이야기로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불생의 믿음과 의리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작자가 논찬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지켜져야 할 가치가 있는 약속은 반드시 정의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²³⁾ 그렇다고 할 때, 불생이 일생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랑과의 약속을 지키는데는 충실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선인의 후사를 끊어지게 했다면 이는 인륜의 정도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작은 것을 얻기 위해 보다 큰 것을 저버렸다고 볼 수 있다. 신의나 약속을 지킨다는 것도 무조건 도덕이 될 수 없으며 정의와 일치하여 지킬 만한 약속일 때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논찬에서 드러난 작자의 비판이 明軍에 인질로 끌려가던 여랑의 자결에 있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한 불생에게 가해지는 까닭을 이해할

23) 有子曰 信近於義 言可復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因不失其親 亦可宗也(論語, 學而十三)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이의 서술동기가 특정의 실존 인물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나 사진이 갖는 흥미성에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실이기에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흥미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작품의 저작연대와 작자가 처한 역사적 상황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작자의 강렬한 역사 비판의식이 결코 그같은 소극성을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시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胡王朝(1400~1407)와 後陳(1407~1414)은 각각 짧은 기간 동안 존속하면서 명나라의 부단한 간섭 속에 정변이 계속되어 극도로 혼란했던 시기였다. 군사력 우위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群雄이 割據하였고, 抗明運動 또는 王朝回復을 명분 삼아 제각기 主義와 思想 또는 目的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結社를 조직, 참여하게 대결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에 따라 사적 감정이나 목적을 앞세워 인륜의 正道를 逸脫하여 大義 혹은 正義를 소홀히 하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이는 작자가 직접 경험했던 16세기적 사회상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작자는 무신 혹은 권신들의 세력 각축장으로 변해버린 조정에서 려왕조의 비극적 운명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립과 분열의 역사는 이후 막씨와 려왕조 부흥세력을 자처하는 鄭氏, 阮氏 등에 의해 18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처럼 작자는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 人倫의 正道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한 것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촉구하고자 했던 것이 분명하다.

4. 「傳奇漫錄」에서의 作者意識

그러면 앞서와 같이 개별 작품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사회정치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성격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먼저 何善漢은 序文을 통해 작자 阮嶼가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학문에 힘썼으며, 문장으로 家門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다고 하였다. 그의 父 翔鏢는 1496년 丙辰科에 올라 承宣使를 지냈고 후에 尙書에 추증되었으며, 그도 또한 과거에 올라 현령이 되었으나, 겨우 일년이 지났을 때 莫登庸이 黎王朝의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 은거하면서

후학을 가르치는 한편, 부모에게는 극진히 효도를 다했다고 하였으니, 그에게 있어 학문, 곧 유학은 일종의 家學이자 실천적 규범인 셈이다.

이렇게 볼 때, 그의 행위와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학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을 매우 중요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학 자체가 추구하는 본질적, 궁극적인 목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공자는 학문의 목표를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도덕성을 키워서 인격의 완성자인 君子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²⁴⁾ 그리고 이는 인간은 누구나 천부적인 德을 닦음으로써 군자와 聖인이 될 수 있다는 인간 존재에 대한 강한 믿음에 바탕하고 있다. 따라서 유학에서의 君子論은 그 기저에 天思想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天은 도덕의 원천과 규범이 되며, 인격 완성의 궁극적 보증(ultimate reference)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²⁵⁾ 이러한 인간론적 목표는, 유교의 발전사라는 전체적 흐름에서 볼 때, 불변하는 유교의 전통적 성격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학은 道, 곧 德治를 세상에 널리 퍼서 治世安民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강한 사회정치적 지향성을 그 특성으로 삼는다.²⁶⁾ 일반적으로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거쳐 관직에 나아가고자 노력했던 것은 이같은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작자 阮嶼가 유학을 家學으로 하여 博覽強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을 하였다든 사실은, 유학의 현실주의가 「傳奇漫錄」의 세계관적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닐 뿐 아니라, 아울러 이를 통해 그의 작자의식이 강한 도덕성과 사회정치성에 바탕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전기만록」에서의 작자의식이란 것도 이상과 같은 도덕성과 사회정치성을 일종의 메타 언어로 삼는다고 할 것이다.²⁷⁾

그 결과 개별 작품이 갖는 의미구조와 우의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작자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투철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유학이 추구하는 이상사

24) 金勝惠, 原始儒教, pp. 9-10,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51, 민음사, 1990.

25) 金勝惠, 앞의 책, p. 331.

26) 金勝惠, 앞의 책, p. 329.

27) 이러한 사실은 개별 작품의 말미에 附記된 작자의 논찬을 통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를 거울로 하여 현실의 여러 현상과 조건들을 비취보고, 그를 통해 부도덕과 부조리를 고발해서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부정과 마땅히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을 보여주고 민족적 인식과 각성을 기대한 것이다. 그가 거둬 君子論에 바탕하여 眞人の 출현을 강조하면서 正統論과 天道論에 집착하는 이유도 새로운 역사창조에의 강렬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서, 새로운 역사의 창조는 당위성과 필연성에 기초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의 작자의식은 사회의식적이며 비판적이다. 그리고 이는 유학적 특성으로서의 도덕성과 사회정치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5. 결 론

本稿는 전문학을 이해함에 있어 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도 좌우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베트남(Viet-Nam) 최초의 전문학적 자료인 阮嶼 作「傳奇漫錄」(4卷 20篇)을 텍스트로 그 문학적 특질을 살핀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찌기 베트남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중국문화의 수용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외세에 대항하는 가운데서 이룩된 현실인식과 민족의식의 高揚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는데, 「傳奇漫錄」의 형성배경 역시 외적 조건으로는 先秦散文의 전통에 따른 史記 列傳 및 唐代傳奇와 剪燈新話 등 중국문학의 오랜 영향을 들 수 있으며, 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베트남의 16세기적 역사상황과 그에 따른 작자의 사회적, 민족적 체험이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작자 阮嶼는 1527년 移住民 출신의 무장 莫登庸이 정통의 黎王朝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게 되자, 관직에서 떠나 은둔생활로 일생을 마친 사람으로서 당시 유학적 소양을 갖춘 비판적 지성인이었다. 그리하여 1547년을 하한선으로 해서 이룩된 「傳奇漫錄」은 16세기적 역사상황과 관련한 阮嶼의 發憤著作인 셈이다. 이를 계기로 段氏點의 「傳奇新譜」, 阮演齋의 「傳聞新錄」, 范貴適의

「新傳奇錄」 등의 모방작이 나와 傳奇小說을 형성하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의 小說史的 意義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우선 篇名이 傳으로 되어 있는 작품(7편)을 대상으로 그 의미구조를 살펴본 결과, 寓意性이 보편적 특질의 하나로 나타났다. 이는 작자의 서술의 도가 객관적 사실 기록과 그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 신념의 표현에 있으며, 따라서 事實과 虛構에 의한 서술의 구체적 형상은 일종의 變裝이며, 대상 인물 개인보다는 작자의 표현의도와 관련한 역사상황이나 사회구조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같은 寓意性을 고려할 때, 전 양식이 주관적 신념의 표현과 객관적 사실 전달이라는 상호 대립적 지향성에 대해서 결코 배타적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快州義婦傳은 一夫從事로 죽음을 택한 한 義婦의 개인적 삶을 顯彰하는 형식을 빌었으나, 실제로는 진인출현을 통한 정통 왕조 회복에의 염원을 우의적으로 나타내고 있거니와, 烈女不更二夫라는 사건의 구체적 형상화의 이면에 忠臣不事二君의 결연한 의지를 감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木棉樹傳은 어느 愚民이 女鬼에게 홀려 非命構死하고 다시 妖鬼가 되어 민풍을 크게 해치다가 道人の 신통력에 의해 퇴치된다는 이야기로서, 惑世誣民하는 비정통왕조의 등장과 그로부터 야기된 사회 정치적 혼란에 대한 작자의 비판적 우국정신을 나타낸 것이다.

東潮廢寺傳은 陳王朝가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교를 크게 장려했던 사실을 두고, 작자는 그같은 허구성을 불교가 지닌 사상적 허구성에 가탁하여 비판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비정통자라는 사실에서 진왕조와 함께 莫氏家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翠綃傳은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고난을 겪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작자의 본래 의도는 부정한 신하로 말미암아 한 임금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불운을 그려내는 것이다. 亂臣賊子와 같은 朝廷의 잘못된 君臣關係에 대한 일대 경종의 성격을 지닌다.

南昌女子傳은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결백을 의심받은 아내가 이를 해명할 길이 없자 강물에 투신해서 자살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작자는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에 따른 病理現象으로 인간관계에서 반목과 불신,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한 각성을 촉구하였다.

李將軍傳은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장군이 일생 동안 온갖 악행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숨을 거두자, 이를 두고 사람들은 모두 天道가 없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승에서 그는 참혹하게 천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작자는 이를 통해 거듭되는 外侵과 정변의 와중에서 득세한 무인 세력들의 불법과 악행을 비판하고, 至公無私한 天道가 嚴存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麗娘傳은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였다가 여자가 전란 중에 자결하게 되자 남자가 끝내 재혼하지 않고 지낸다는 이야기로, 작자는 논찬을 통해 작은 것을 얻기 위해 오히려 큰 것을 잃었다고 하여 先人の 後嗣를 끊은 것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약속은 그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大義 또는 정의와 일치할 경우에만 정당성을 지니며 실천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으로서, 人倫의 正道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作者意識, 즉 작자가 현실을 역사적으로 투시해서 인식한 내용은 한결같이 正統論과 君子論 혹은 天道論에 의거하여 사회의식적이고 현실비판적인 바, 이는 유학의 전통적 특성인 도덕성과 사회정치성이 배타 언어로 작용한 데 따른 자연한 귀결이다.

主要參考文獻

- 陳慶浩, 王三慶 主編, 傳奇漫錄, 越南漢文小說叢刊 第一冊(臺灣, 學生書局, 1985)
- 金勝惠, 原始儒教,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51, (서울, 민음사, 1990)
- 金興圭, 韓國文學의 理解(서울, 민음사, 1986)
- 劉仁善, 베트남史(서울, 민음사, 1989)
- 趙東一, 한국문학통사(서울, 지식산업사, 1983)
-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委員會, 國家文藝基金管理委員會 主編, 中國文學講話 (1) 概說, (臺灣, 巨流圖書公司, 1982)
- 西諦 編著, 中國文學史(臺灣, 宏業書局有限公司, 1985)

華正書局編輯部, 校訂本中國文學發展史(臺灣, 華正書局, 1987)

拙稿, 韓國 傳文學의 展開樣相과 特性 研究(釜山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